

보건복지 ISSUE & FOCUS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358호 (2019-01)
발행일 2019. 01. 21.
ISSN 2092-7117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EL 044)287-8000 FAX 044)287-8052

소득빈곤에 대한 이해: 조정가처분소득의 의미



이현주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빈곤은 낮은 소득뿐 아니라 높은 지출 부담 등 여러 측면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위험임.
- 빈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기초육구 영역의 가구지출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분야의 가구지출 부담이 높은 국가로, 해당 지출 차감 후의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이 가처분소득 빈곤율에 비해 높은 상황임.
- 소득빈곤과 지출 압박을 고려한 빈곤 모니터링과 정책 개발이 강화될 필요 있음.

■ 가처분소득 빈곤의 의미와 한계

- 소득분배와 소득빈곤을 측정할 때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소득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임.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연금+정부지원금) - 조세 - 사회보장분담금
- 통상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는 정부 개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변화로 이해됨.
- 가처분소득 빈곤은 처분이 가능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빈곤을 이해하는 데 의미를 지님. 그러나 실제 생활상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를 지님.
 - 이유는 가처분소득이 유사해도 사회구성원이 체감하는 소득빈곤은 사회정책의 수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임.
 - 가처분소득 중위 60%의 빈곤율이 유사한 국가라 하더라도 기초육구 충족을 위한 가구의 지출 부담은 상이함.

〈표 1〉 각국 빈곤율과 기초육구영역 지출의 가구부담 수준 비교

	스웨덴	독일	영국	한국
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 60%, 2015년 기준)	17.0	16.8	17.9	19.1
교육비 민간 지출(GDP 대비 비율)	0.2	0.6	2.0	1.7
의료비 가구 부담(GDP 대비 비율)	3.3	1.8	1.5	5.1
주거비 가구 부담(GDP 대비 비율)	19.6	20.4	23.7	15.2
장기요양 가구 부담(GDP 대비 비율)	0.2	0.6	0.6	0.4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OECD Data. Private spending on education. <https://data.oecd.org/eduresource/private-spending-on-education.htm>.

OECD. (2017). How's Life? 2017. p. 361.

OECD.Stat. [https:// stats.oecd.org/](https://stats.oecd.org/)

○ 소득구간이 유사한 가구들도 육구의 차이가 커서 소득이라는 대리변수로 생활상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2016년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중위 40~50% 가구들의 균등화된 월세 월평균은 3만 6741원, 의료비 평균은 월 7만 6277원, 초·중등교육비 평균은 월 6087원, 초·중·고등교육비 평균은 월 1만 1263원임.
- 그러나 월세¹⁾의 최솟값은 0, 최댓값은 42만 4263원, 의료비의 최솟값은 0, 최댓값은 월 89만 8445원, 초·중등교육비 최솟값은 0, 최댓값은 월 20만 3633원, 그리고 초·중·고등교육비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월 231만 6291원.²⁾

■ 조정가처분소득 활용의 예

- 가처분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처분소득을 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가처분소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조정되어 빈곤이나 불평등 파악에 활용됨.

- 첫째, 가처분소득에 현물지원을 현금으로 환산한 것을 가산하여 조정가처분소득을 구성함.
- 둘째,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와 같은 기초육구 영역의 가구지출을 차감하여 조정가처분소득을 구성함.

■ 현물지원 가산 조정가처분소득

○ 현물지원을 가산하여 조정가처분소득을 구성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영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³⁾ 등에서 활용.

-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현물지원을 가산하여 소득을 조정한 후 이 최종소득(final income)⁴⁾을 기준으로 한 조세재정지출 효과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⁵⁾

○ 최근 통계청에서 이러한 방식의 조정가처분소득을 활용하여 2016년 소득분배지표를 발표한 바 있음.

- 2018년 11월 발표한 통계청의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⁶⁾를 참고하면 사회적 현물 이전은 2016년 기준 지니계수를 13.9% 감소시켰고(0.357→0.307), 5분위배율은 33.3% 감소시켰으며 (7.06배→4.71배), 상대적 빈곤율은 31.4% 감소(17.9%→12.2%)시키는 효과를 보였음.

1) 주거비 산정은 연구마다 상이함. 월세를 중심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자가 등을 포함, 이자율 적용 등으로 주거비를 대체하기도 함. 각 사회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한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2) 이현주, 김진, John Hudson, 전지현. (2018).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2.

3) OECD는 교육, 건강,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일차적 목표가 재분배는 아니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분배적이라고 언급함. 회원국이 공적 사회서비스에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지출하고 공적 사회서비스가 소득불평등을 평균 1/5 정도 완화시킨다고 보고함. OECD. (2011) An Overview of Growing Income Inequalities in OECD Countries: Main Findings .p. 38

4) 성명재. (2011). 조세·재정지출 분포의 현황과 국제비교.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183호. p. 39

5) 관련 연구의 예는 아래와 같음.

박기백, 성명재, 김중면, 김진. (2006) 사회분야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현물급여 및 간접세 포함. 한국조세연구원.

6) 통계청. (2018. 11. 02). 보도자료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초자료로 활용'.

〈표 2〉 2016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처분가능소득 (반영 전)	조정처분가능소득 (반영 후)	감소율(%)
지니계수	0.357	0.307	13.9
소득5분위배율(배)	7.06	4.71	33.3
상대적 빈곤율(%)	17.9	12.2	31.4
은퇴연령층 빈곤율(%)	45.1	35.9	20.3

자료: 통계청. (2018).

- 현물지원 가산 조정가처분소득은 주로 국민계정의 현물급여지출을 해당 가구로 추정되는 가구의 소득으로 가산하여 추정.
 - 통계청의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가처분소득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정. 예·결산자료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물지원별 1인당 추정된 화폐 가치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수혜 대상자에게 할당.
 - 의료,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및 기타 바우처 등 6개 부문을 반영한 추정임.
- 이 방식은 가처분소득과 달리 현물지원을 반영한 정부지출의 영향(impact)⁷⁾을 파악하도록 함.
 - 반면 현물지원을 가산한 조정가처분소득의 경우 실제 소득으로 구현되지 않은 지원을 소득으로 간주. 예를 들어 소득이 50만 원인 극빈층 가구가 100만 원 상당의 무상 진료를 받으면 가구소득을 150만 원으로 간주. 만약 이 가구가 의료비 50만 원을 추가 지출하여도 가처분소득은 150만원으로 처리됨.
 - 이 방식의 조정가처분소득은 주거, 의료, 교육 분야와 같이 기초육구 영역의 현물지원이 취약한 국가의 국민 부담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지니게 됨. 반면 소수 극빈층을 대상으로 엄격한 선별주의 현물지원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현물지원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주거 등 기초육구 영역의 가구지출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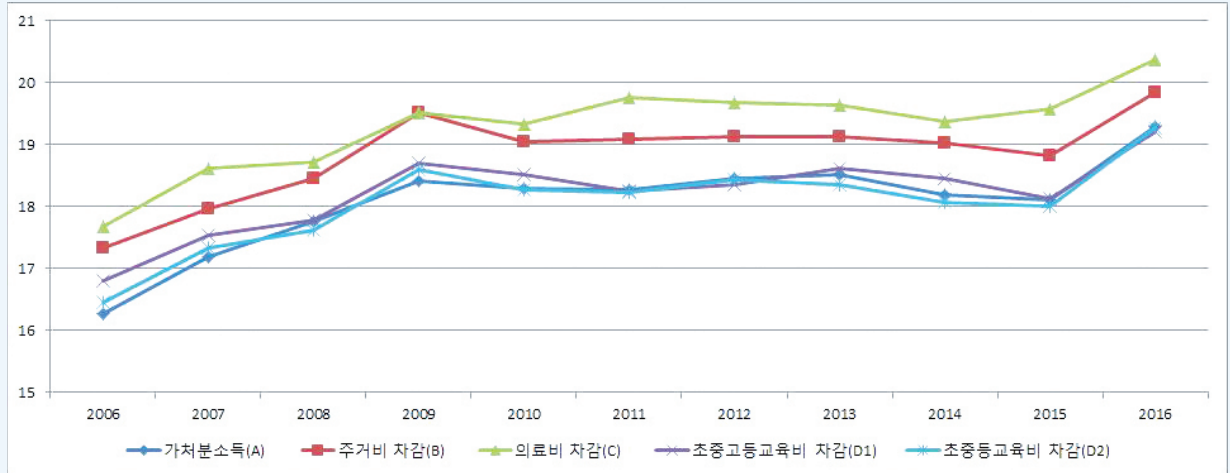
- 가구의 지출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주거비 지출 후 조정가처분소득⁸⁾임.
 - 영국의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저소득 가구 통계(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를 정기적으로 생산 중임.
 - 이 통계는 주거비용 전(before housing costs: BHC) 소득과 주거비용 후(after housing costs: AHC) 소득을 공히 활용하여, 빈곤율 등의 동향을 파악.⁹⁾
- 의료, 교육, 주거를 위한 가구의 지출 부담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주거비분 아니라 의료, 교육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을 활용하여 소득분배와 빈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주거비와 의료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이 가처분소득 빈곤율보다 높음.
 - 2016년 기준 주거비(월세) 차감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는 0.54%포인트임.
 - 의료비(외래와 입원비 등)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차이는 1.08%포인트임. 의료비 차감 조정가처분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가 가장 컸고 줄지 않는 경향을 보임.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이 커서 의료비 차감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악화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됨.

7) 현금지원을 반영하여 소득분배와 빈곤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연구자에 따라 '현금지원의 영향' 또는 '현금지원의 효과'라고 분석 내용을 달리 정의함.
 8) 주거비를 고려한 조정가처분소득은 비교적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 중. 벨기에에서도 에너지빈곤을 측정하면서 주거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대비 에너지지출 비용으로 과부담 여부를 측정. 아래의 자료를 참조.
 Meyer, S., Holzemer, L., Nyssens, T., & Mar · chal, K. (2016). Things are not always what it is measured: On the importance of adequately assessing energy poverty. CEB Working Paper No. 16/025 June 2016.
 9) 아래의 자료를 참조.
 Chris Belfield, Jonathan Dribb, Andrew Hood, Robert Joyce. (2016). Living Standards, Poverty and Inequality in the UK: 2016.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pp.63-68.

- 교육비 차감 조정가처분소득은 가처분소득 빈곤율에 비해 더 양호해지는 경향을 보임. 이는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이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됨.

[그림 1] 조정가처분소득 가구 빈곤율 변화(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이현주 외. (2018). p.164.

- 프랑스(2010년 기준)는 의료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차이가 0.33%포인트 이고 한국(2016년 기준)은 해당 값이 1.04%포인트임.¹⁰⁾ 한국은 프랑스와 비교하여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 크고 빈곤율 악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복지선진국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차감 조정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악화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¹¹⁾

■ 시사점

- 빈곤과 분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처분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비와 소득을 함께 파악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 현물지원을 가산한 조정가처분소득과 주거비, 의료비 등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의 의의와 한계를 고려한 조정가처분소득의 대안적 활용을 시도할 필요 있음.

10) 분석에 활용된 원자료는 아래와 같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http://www.lisdatacenter.org/>
통계청. (2016). 가계동향조사.
11) 주거비는 실제임대료(actual rent)를, 의료비는 의료비 전체를 차감하여 조정가처분소득을 계산하였음.

집필자 이현주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문의 044) 287-82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kihasa.re.kr

